복합쇼핑몰이 완성되기까지 광주시민이 알아야 할 일

의정단상

신수정
광주시의원

얼마 전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 초청받아 대전에 다녀왔다. 광주로 내려오기 전 복합쇼핑몰이라고 일컬어지는 '코스트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다. 필자 생애 처음으로 간 복합쇼핑몰이기에 내심 기대가 컸다. 그런데 그 기대가 전혀 헛되지 않았다.

일단 볼거리가 풍족했다. 브랜드도 다양했고, 심지어 가격도 저렴했다. 광주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참 많았다. 대전 시민이 부럽기도 하고, 이래서 복합쇼핑몰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다.

광주는 복합쇼핑몰이 없다. 복합쇼핑몰 이슈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가 광주에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큰 쟁점이 되었다.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광주에만 없는 복합쇼핑몰을 알림으로써 광주시민에게 박탈감을 주었고, 지금은 복합쇼핑몰 반대를 이제는 외칠 수도 없는 분위기다.

현재 광주에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사업지는 총 3곳이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이마트 부지와 야외 주차장 부지를 합쳐 신축·이전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 백화점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더 현대 광주'의 입점을 계획하는 전남·일신방직 부지는 지난달 29일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이 확정되면서 본격 궤도에 올랐다. 18년간 표류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프라퍼티가 그랜드 스타필드를 계획 중이다. 신세계프라퍼티와 광주시는 60일간의 협상을 거쳐 연내 사업협약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 더현대 광주는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광주신세계는 지난 1년 넘게 진행된 계획의 급변경으로 기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완공 시점을 변경된 상태다.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는 2026년까지 관광단지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 착공에 돌입해 2030년까지 단계별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눈에 가시화된 복합쇼핑몰을 볼 수 있을 때는 빠르면 3년 후일 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필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광주시 행정에서는 더디다고 느끼는 광주시민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신속한 추진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 절차와 합의도 매우 중요하지만, 과거 몇 차례 무산된 트라우마를 지닌 광주시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하는 초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은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복합쇼핑몰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상생 방안을 실현하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벤치마킹도 해야 한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을 통해 예측되는 지역경제 효과, 고용률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지역 상인과 시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일방의 더현대 광주, 광주 신세계백화점 터미널 복합화,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할 것인지의 문제다. '더현대 광주'의 경우 광주시는 토지가치 예상 상승분 1조 835억 원의 54.45% 수준의 5899억 원을 공공기여액으로 확정했다. 광주시민이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5899억 원의 공공기여액이 전·일방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 주민의 특혜로 돌아가는 것이 소상공인과 광주를 방문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 기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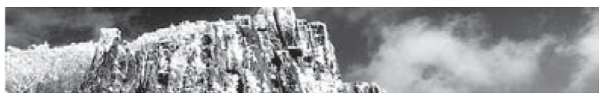
복합쇼핑몰은 특성상 관광과 문화, 숙박, 쇼핑을 중심으로 하기에 사람을 광주 도시로 사람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를 지역 상권과 골목 경제 활성화에 결합할 수 있는 광주다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또, 복합쇼핑몰을 통해 얻는 영업이익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선순환할 것인지 정책적 대안도 필요하다. 필자는 예컨대 가칭 상생협력기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쇼핑몰 포인트제 마련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실행해 옮길 참이다.

복합쇼핑몰은 광주의 도시 인지도와 유통시장, 마케팅을 새롭게 혁신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광주시 행정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지 않는다면 복합쇼핑몰이 광주에 마련될 시간이 그리 멀지 않다. 3개 복합쇼핑몰이 가시화되기까지의 3년의 세월! 개발 이익에 따른 사회 기여와 영업이익을 온전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할 매우 중요한시간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3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음식을 받기 위해 배급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라파=AP/뉴시스

서석대



꿈의 도시 네옴시티

"오는 203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확 바꿀 '새로운 미래의 도시'를 건설하겠다." 지난 2017년 무함마드 빈 살만 알아수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 사막 2만 6500㎢에 1조 달러를 들여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길이 170㎞, 높이 500m의 선형 도시 '더 라인', 수상 스포츠와 스키 등 사시사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관광단지 '트로제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부유식 산업단지 '옥사곤' 등 하부 계획도 내놨다.

'초거대', '친환경', '스마트시티'를 캐치프레이즈로 연관 산업도 제시했다. 대규모의 건설 사업인 만큼 수많은 건설사가 역량을 발휘해야 하고, 초장거리 도시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 혁신적인 모빌리티 산업이 갖춰져야 한다는 게 빈 살만 왕자의 생각이었다.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금과 다른 에너지 산업이나 수자원 분야의 혁신적 기술도 요구했다. 석유중심의 2차 산업 위주인 사우디의 경제를 IT와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로 전환하겠다는 꿈도 내놨다.

그로부터 6년여. 엄청난 투자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다. 당장 천문학적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우주공상과학 영화나 판타지게임에서 볼 법한 초대형 도시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사막 한가운데서 동계 아시안게임과 동계 올림픽을 열겠다는 계획도 터무니없어 보인다. 중동이라는 위험요소, 도시 조성 이후 발생할 윤리적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네옴시티가 원안대로 수행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다. 그렇다고 그 이유로 네옴시티에 참여할 기회조차 거절하는 건 더 어리석다." 지난 7월 책 '네옴시티'를 쓴 작가 유태양의 이야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네옴시티'를 사례로 들며 공직자의 사고전환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문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사우디를 방문하고 전남 에너지기업이 미래 스마트 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네옴시티는 미래 먹거리와 혁신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보고다. 실체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유태양 작가는 책에서 "낭만도 편견도 버리고 계획과 배경을 읽으면 가려진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꼼꼼하게 배경을 살피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도지사의 열정이 꿈의 도시 네옴시티를 전남도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 이용환 논설실장

社說

민주, 국민 믿고 더 큰 그림 그릴 수 없나

광주·전남 잇따라 혁신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사회가 민주·진보 세력 단결을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법 개악 중단과 호남 패권 포기, 야권 연합 등 대승적 결단을 호소했다. 자기 혁신이나 희생을 외면하는 지금의 민주당, 자신의 당선만을 위해 원칙과 상식을 내팽개친 민주당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광주 1000인 비상시국 선언은 14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야합해 선거법을 개악한다면 이는 선거를 포기하는 대국민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호남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등 깊은 성찰과 대승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남지역 농민회와 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남비상시국선언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병립형 개악 중단과 호남 기득권 양보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해 선거법을 개악한다면 이는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민주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과 청년을 비하하고 여성을 혐오하는 등 거친 언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정파적 이해에 빠진 저열한 정치의 악순환이다.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창당도 지역사회의 여론을 뒤흔드는 태풍이다. 선거법 개악 중단과 전국적 연대, 호남에서의 양보, 비례위성정당 창당 금지 이날 광주·전남 지역민의 주장이 허투루 나온 게 아닌 셈이다.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진보의 가치에 있다. 사회적 약자에 눈을 돌리고 도덕성과 함께 상식과 원칙도 지켜가야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올해의 사자성어가 견리망의라고 한다. 의로움을 잊고 이익만 챙긴다는 뜻이다. 지금의 민주당이 그렇다. 이래서는 진보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없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믿고,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민주당의 당당한 변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관광 효자' 여수 웹드라마 아홉번째 도전

내년 초 '하멜' 개봉 예정

여수시가 아홉 번째 여수관광 웹드라마 '하멜' 제작을 시작했다. '하멜'은 네덜란드 하멜표류기에 기반한 휴먼 판타지 로맨스로, 낭만 도시 여수를 배경으로 MZ세대의 사랑과 애환을 그려나가는 이야기다. 오는 2024년 초 개봉될 예정이다.

여수시가 웹드라마를 제작하게된 시기는 지난 2015년 쯤이다. 뉴미디어 시대에 웹드라마를 통해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널리 알리겠다는 의도였다. 여수지역엔 다양한 전설과 설화, 역사 등을 매개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현대적으로 재각색을 통해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 여수관광 웹드라마는 2015년 '신지끼의 사랑이야기'를 시작으로 2023년 '꿈꾸는 섬'까지 총 여덟 편이 제작됐다. 첫 웹드라마인 신지끼는 전남도내에서 유일한 인어전설이 깃든 거문도 녹산등대에 있는 인어상을 소재로 삼았다.

두번째 작품인 '여명'(2016년作)은 420년 전 노량해전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함께 활약한 명나라 등자룡 장군의 후손의 이야기다. '마녀목'(2017년作), '동백'(2018년作), '호접몽'(2019년作) 등 역시 여수만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한 작품들이다. 이들 여수에서 제작된 웹드라마는 국내·외적으로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여순사건을 기반으로 한 '동백'은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 황금늑대상을 수상했다. 8년 연속 국내·외 웹페스트에서 꾸준히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여수시가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촬영섭외부터 기획·제작까지 도맡은 여수 웹드라마는 첫해 제작비가 2500만 원이었다. 해마다 웹드라마가 성공을 거두면서 올해 제작 예산은 1억 원으로 증액됐다. 웹드라마는 유튜브 등을 통해 작품 클릭수가 2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서울 외에는 안된다는 편견을 깨고 인구 30만명인 여수시가 웹드라마를 통해 유명 관광지와 여수 이미지를 알려 나가면서 결실을 맺고 있다. 여수시가 '1000만명 관광도시'로 거듭난데는 웹드라마 등의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다는 반증이다. 말 그대로 여수시가 웹드라마 제작비로 수지 맞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